

투데이 칼럼

농협중앙회,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전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를 앞두고 해당기관들의 지방이전 반대 움직임과 별개로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 또한 뜨겁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외의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 기반을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수협중앙회와 더불어 지방이전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일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등의 전북도 이전이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연구 성과를 현장에 확산하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중앙회의 전주 이전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전주는 농협중앙회가 새롭게 자리



박 건 후

전 전주농협 조합원 지원실장

잡기에 충분한 상징성과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다. 인근 김제에는 농업·농자·스마트농업 기반이 있고, 익산의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의 농생명용지까지 연결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가 전주에 자리 잡는다면 이러한 농생명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기술을 농업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농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농업의 금융과 경제사업을 활용해 농가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며, 농식품 가공

과 수출까지 연결하는 연구·생산·금융·유통·가공·수출의 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농민을 위해 존재한다. 농업과 농민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농민의 목소리가 농업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전주는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북의 행정·교육·문화 중심도시이면서 혁신도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경쟁과 기반도 축적했다. 농협중앙회가 이전할 경우 임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주거·문화 여건을 함께 확보한다면 성공적인 이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농협대학교의 전주 이전 또는 제2캠퍼스 설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능, 농협중앙회의 금융·유통기능, 농협대학교의 교육기능을 하나의 권역에 집적한다면 전주는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정책·연구·금융·교육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물론 농협중앙회의 이전은 농업인과 조합원, 임직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경제성·업무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더 큰 실익을 돌려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농협이 있는 곳에 농협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주에 농협중앙회가 함께한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농협중앙회 전주 이전,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농업혁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새로운 선택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다.

사설

학력 폐지 SK하이닉스 공채

신입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한 SK하이닉스가 8월 20일부터 하반기 신입 공채를 시작한다. SK하이닉스는 학력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서울 양재 엘타워를 시작으로 대구 엑스코, 청주 오스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학 캠퍼스가 아닌 전국 주요 거점을 돌며 채용 설명회를 열고 있다.

회사 측은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정립한 인재상과 채용 방식을 소개했다. 단순 지식이나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그런 만큼, △미지의 공정 난제를 해결하는 '본질적 탐구 역량',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변화 적응력', △다양한 관점에서 협업과 혁신을 이끄는 '사고적 다양성'을 3대 미래 역량으로 제시했다.

이번 채용부터는 새로운 '반나절 심층 면접'도 도입한다.

지원자들은 면접장에 마련된 PC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직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 해결 발표(PT)를 해야 한다.

또 심층 인터뷰, 그룹 토론, 비대면 영상 인터뷰 등을 거쳐게 된다. 올해 4분기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을 면제하고 면접으로 직행할 기회를 주는 'AI 해커톤'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입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삼전닉스 단일 레버리지 1조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대금이 이틀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8월 20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조 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35.2% 증가한 규모로, 지난 18일 1조1951억원에 이어 이틀 만에 1조원을 웃돌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9.49%, 12.73% 급등하면서 관련 레버리지 상품도 최대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영향이다.

상품별로는 KODEX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3,682억원, TIGER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1,764억원의 거래 대금을 기록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개인은 이날 KODEX와 TIGER의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각각 512억원과 233억원을 순매도했고,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각각 161억원과 3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인버스 상품을 순매수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등을 계기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작은 배려가 큰 안전 만든다

최근 고령층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 반응속도 등이 떨어질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 무리하게 횡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고, 가능하면 보행안전 용품을 활용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전자 역시 고령 보행자가 많은 전 통시장, 병원, 경로당 주변이나 주택가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

다. 고령 운전자는 운전 전 자신의 건강상태와 피로 정도를 확인하고, 야간이나 악천후 등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들도 고령 운전자에게 무조건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과 안전 운전을 함께 점검해 주는 관심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는 한 번 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피며, 가족과 지역사회는 고령층의 안전을 함께 챙기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령자 교통안전은 '누군가의 부모님과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권투 경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



2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 자유 격투 종목에서 로봇들이 경기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